

# 일본 성금 1주일간 2억 돌파

## 익명, 고액기부자도 등장... 조계종 일본에 생수 지원 방안 검토

지난 한 주 역사적 아픔은 잠시 잊고 인류애를 발휘하는 불자들의 정성이 넘쳐났다. 일본에 파견됐던 조계종 구호팀 선발진은 귀국 후 생수와 식료품 지원이 시급하다고 보고한 뒤 관련 방안을 논의했다.

### # 사찰 및 개인 성금 줄이어

일본 지진피해를 돕기 위한 불교계 차비의 손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신흥사(주지 우승)와 진관사(주지 계호)는 3월 21일 아름다운동행에 통해 일본 지진 피해 지원금 1000만원을 각각 전달했다. 신흥사와 진관사는 군법당 설립 지원을 위한 기금 2000만원과 1000만원도 별도로 지원했다.

국제구호활동을 펼치고 있는 로터스월드(공동대표 성관·퇴후)도 일본지진 피해 지원을 위한 기금 1000만원을 같은 날 전달했다.

직지사(주지 성용)도 일본 지진 피해 지원을 위한 기금 1000만원과 군법당 설립 및 승가교육진흥을 위한 기금 1000만원을 22일 총무원을 방문해 전달했다.

해인사 고불암(주지 선각)도 지진 피해로 고통받고 있는 일본 지원에 동참했다. 해인사 주지 선각 스님과 총무 심우 스님은 24일 총무원을 방문해 일본 지진 피해 지원금 1000만원과 군법당 설립 지원 1000만원, 민족문화수호기금 1000만원을 각각 지원했다.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도 일본 지진피해 구호를 위한 기금을 전달했다. 일면 스님은 25일 자승 스님을 예방하고 일본 구호 성금 500만원과 민족문화수호기금 500만원을 아름다운동행에 기탁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는 24일 제1차 상임 이사회를 열고 일본 지진피해 성금 모금에 26개 소속 종단이 동참하기로 결정했다. 모금된 성금은 한일불교문화교류회에서 함께 일한불교문화교류회를 통해 전일본 불교회에 전달할 계획이다.

일제의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의 피해자인 합천 평화의집 식구들은 일본을 돕기 위한 캠페인에 나선다. 이번 캠페인은 합천 시내 일원에서 28일부터 4월 30일까지 전개될 예정이다.

사찰 및 불교계 단체들의 기부금 전달과 더불어 개인들의 모금 참여도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다. 아름다운동행에 따르면 14일부터 시작된 모금 캠페인은 25일 오전까지 집계한 결과 281곳의 개인 및 사찰에서 2억8891만8570원이 모금됐다.

이중 개인 후원에는 242명이 참여해 4717만9000원이 모아졌다. 호법 부장 상운 스님과 지관 스님이 각각 1000만원을 후원했다. 김관두 후원자는 지난 아이티 구호 기금에 이어 이번 일본 피해 복구 기금 마련에도 동참해 주위를 훈훈하게 했다.

이 밖에 아름다운동행의 해피로그 온라인 모금을 통해 1117명이 참여했으며 현재 176만1600원이 모금됐다. ARS 모금도 850건이 접수되면서 255만원이 일본



해인사 주지 선각 스님(사진 우이) 일본지진피해 돕기 및 자비나눔기금을 전달했다.

구호기금으로 모아졌다.

아름다운동행 관계자는 “실명이 아닌 ‘일본지진돕기’ 등 익명으로 수 십 만원을 입금하는 사례도 있고, 50~100만원의 거액 기부도 늘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 # 인력 파견은 신중키로

조계종이 일본에 파견했던 구호팀 선발진의 보고에 따라 생수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다.

조계종은 구호팀 팀장 묘장 스님(조계종 사회국장)과 선발진으로부터 현지 활동에 대한 업무 보고를 21일 4층 접견실에서 가졌다. 이 자리에서 묘장 스님은 “잇따른 여진과 방사능 유출 위험 등으로 현지

상황이 불안하다”며 인력 파견보다는 생수와 식량 등 구호물자를 우선적으로 파견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선발진은 특히 일본이 그동안 수돗물을 식수로 사용해왔으나 최근 수돗물에서도 방사능이 검출돼 식수 확보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조계종이 출시한 생수 ‘산은 산이요 물은 감이로다’의 지원 가능 물량을 파악해, 조속히 지원할 것을 지시했다. 총무원 사회부는 현재 300가량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조계종은 또 희생자들을 위한 위령제를 각 교구본사별로 실시하고, 일본과 공동으로 진행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박기범 기자

### 박기범 기자의 라울라 존자를 찾아서

## “봉사란 가족처럼 함께 어울리는 것”

### 오성열 우리는선우 봉사팀 팀장



“우리는선우 봉사팀”은 2년 주기로 봉사활동 기관을 변경한다.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도움을 전하고 싶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원칙은 1999년 경 연꽃마을 요양원 봉사활동을 시작하면서 깨지고 만다. 2년의 봉사활동을 마치고 특별한 일을 할 때 눈물을 흘리시던 할아버지, 할머니를 차마 뿌리칠 수 없었던 것이다.

“한 달에 한번 정기적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그 시간 동안 참 많은 것이 들었어. 이제는 정말 한 가족과 다름없습니다. 어르신들과 우리 모두 봉사활동 날만 기다립니다.”

오성열(45·사진) ‘우리는선우 봉사팀’ 팀장의 지론은 ‘즐겁게 봉사하자’이다. 봉사 대상자들과 즐기면서 소통하는 활동이 참된 봉사라고 믿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오 팀장은 봉사활동 내내 팀원들의 사기를 북돋고, 우스갯소리도 하면서 활기찬 분위기를 만든다. 팀원들에게도 묵묵히 ‘노력봉사’만 하지 말고 어르신들과 대화를 하면서 마음을 나누라고 조언한다.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들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봉사’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오 팀장과 ‘우리는선우 봉사팀’은 도배, 페인트칠, 목욕, 발일 등 어르신들을 위한 봉사라면 무엇이든 솔선수범이다. 일 년에 한 번은 요양원 어르신 및 직원

들과 함께하는 캠프파이어를 열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도 한다.

“정말 즐겁습니다. 딸 아이 둘 어른들이 잔치에 보태라고 꼬깃꼬깃한 돈을 주실 때는 정말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 때를 떠올리면 지금도 눈물이 납니다.”

오성열 팀장은 봉사활동을 통해 가장 큰 행복을 느끼는 사람은 그 누구보다 봉사자 자신이라고 생각한다. 타인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행복이고, 자신들을 기다려주는 어르신들이 있기 때문에 행복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한 ‘우리는선우 봉사팀’은 복을 빌지 말고 지으라고 했던 부처님의 말씀을 봉사로 실천하고 있다고 믿는다.

“저희가 대단한 활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보다 더 열심히 하고, 적극적인 봉사자들이 많습니다. 그저 시골에 계신 부모님을 찾아뵙고, 함께 즐긴다는 마음으로 매일 요양원을 방문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런 진실은 어린 아이에게도 그대로 전달된 모양이다. 오 팀장의 어린 딸은 연꽃마을에서 봉사를 하는 날이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보고 싶다고 빨리 가자고 아침 일찍부터 재촉한다. 어르신들도 오 팀장의 딸이 오면 주려고 과자를 모아두기도 한다. 예쁜 손녀딸을 기다리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마음인 것이다.

오성열 팀장은 연꽃마을 요양원에 갈 때면 늘 부처님을 뵈러 간다는 마음이다. 봉사를 통해 경전에 적힌 부처님의 말씀들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불자라면 누구나 봉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만 용기를 내서 실천하면 됩니다.” 박기범 기자

# “지속적이고 신속한 구호방안 마련해야”

## 조계종 일본 지진 긴급재난구호 봉사대 선발진 팀장 묘장 스님

“정말 참담한 모습이었다. 식량구호가 시급한 것으로 파악됐고, 아직까지도 여진이 매일 여러 차례 반복되고 있다.”

조계종 긴급재난구호 봉사대 선발진 팀장 묘장 스님(사진, 조계종 사회국장)은 일본의 상황을 전하면서 2~3개월 동안 지속적인 구호의 손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후발유를 구할 수 없어 현지에서의 선발진 활동도 어려움을 겪었으며 방사능 유출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지진보다는 쓰나미로 인한 피해가 더

컸습니다. 하늘에 독수리들이 날아다니다를 볼 때마다 어딘가에 시체가 있구나 싶어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일본은 현재 국가적인 차원에서 구호활동을 통제하고 있어 선발진의 조사활동도 제약이 따랐다. 선발진은 체류 기간 동안 현지 스님들과 단체의 도움으로 조사활동을 지속하면서 한국 불교계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했다.

사찰 피해 현황에 대해 묘장 스님은 “한국 사찰들은 도시에 위치하고 있어 별다른 피해가 없었으나 일본 사찰들의 현지

에서도 정확한 피해 집계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현지 사찰들은 현재 양초 하나까지도 이재민들에게 나눠주고 대피 공간을 제공하며 구호활동에 적극적이라고 설명했다. 스님은 조계종도 이런 활동을 펼치는 사찰들과 연계해 구호활동을 펼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일본인들도 처음 겪는 위기상황이라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여진과 방사능 유출의 공포가 심각합니다. 일본인들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신속한 지원을 펼쳐야 합니다.” 박기범 기자



## “장기기증으로 생명결사 실천”

### 자승 스님, 생명나눔실천본부 서약 동참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의 장기기증에

동참했다.

자승 스님은 3월 23일 ‘민족문화수호 100일 정진 회향 및 자성과 쇄신 결사 임재법회’ 후 중앙종무기관 교역직 종무원들과 함께 장기기증 서약식을 가졌다. 장기기증 서약식 후에는 아름다운동행의 월보시 일행에 기부 서약식에도 동참했다.

자승 스님은 “장기기증 서약에 많은 분들이 동참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박기범 기자

## 탱화 청동불상 전문

1,000불

3,000불

10,000불



### 四代傳統

계룡산파 계보도

금로당 약효 → 보응당 문성 → 회응당 상군 → 원만당 석운

### 해동 불교 미술원

010-3219-7180 / 010-3743-5167

거제도 흥명사 이미지타후불탱화

“부처님오신날”

## 제 9 회 불교꽃장엄무료특강(상단, 관불단, 법상, 선화등)

40여 년간 동양꽃꽂이 및 불교꽃예술연구를 해 온 보림회에서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여 9번째 무료공개 강좌를 개최합니다. 금번 공개강좌는 1개월간에 걸쳐 좀더 심도있게 불교작품을 다룰 예정입니다. 일반적인 꽃예술과 불교의 꽃예술에 있어서 예술적 차이는 물론 추구하는 가치 기준과 지향점이 판이하게 서로 다를 수 있으며, 이처럼 예술적 문화적 가치 외에 훨씬 심오한 종교적 해석을 살필 수 있습니다. 이번 강좌는 ‘부처님오신날’ 특별강좌인 만큼 불교 꽃예술에 대한 안목과 아름답고 화려하면서도 겸소 담백한 꽃 장엄이 될 것입니다.

■ 일 시

- 4월 6일 수요일 오후 2시 개강(시작)
- 4월 13일 수요일 오후 2시
- 4월 20일 수요일 오후 2시
- 4월 27일 수요일 오후 2시

■ 대 상

1. 일반꽃꽂이는 꽃을 좋아하시는 모든 분 (기초반·초보자 환영. 동양꽃꽂이)
2. 불교꽃꽂이연구 : 사범이상 (부처님오신날을 위한 꽃예술의 모든 것)

■ 장 소

보림꽃예술중앙회 연구소(불교꽃꽂이연구원)

\* 무료강좌임으로 강의는 무료, 약간의 소재비가 있습니다 (실비)

### 보림꽃예술중앙회 연구소 (불교꽃꽂이연구원)

서울시 노원구 월계동 392-106 기원사 경내 꽃꽂이연구소 ☎ 02-918-0034, 919-0034